

<투데이EBS
현대운문A편>
유대종 강사

AB1★. 김영랑 「독을
차고」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a)독 안 차고 살어도 머지 않아 너마져 가 버리
면

억만 세대(億萬世代)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虛無)한디!'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 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1. '벗'은 비록 '나'와는 다른 가치관을 지녔지만 나의 의지를 돕는 친구이다.(o,x)
2. 두 삶의 자세를 대조적으로 표현하여, 하나의 삶의 자세를 부각했다.(o,x)
3. '벗과의 대화'는 시적 화자가 '독'을 차게 되는 상황의 결정적 원인이 된다.(o,x)
4. '허나'는 내면의 의식이 무상감에서 결연한 의지로 돌아서는 것을 나타내는 시어이다.(O,X)
5. 화자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극복의지를 보이고 있다.(O,X)

AB2. ★문정희 「겨울
일기」

나는 이 겨울을 누워 지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영주처럼 윤나게 굴리던
독백도 끝이 나고
바람도 불지 않아
이 겨울 누워서 편히 지냈다.

저 들에선 벌거벗은 나무들이
추워 울어도
서로 서로 기대어 숲이 되어도
나는 무관해서

문 한번 열지 않고
반추동물처럼 죽음만 꺼내 씹었다.
나는 누워서 편히 지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이 겨울.

1. 위 시의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가 바르게 묶인 것은?
①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하여 화자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② 명사로 시를 마무리 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③ 반어적 표현을 통해 풍자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④ 영탄적인 어조로 이별의 아픔을 형상화하고 있다.
⑤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예찬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2.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겨울'은 이별의 시간으로서 화자의 상황을 부각하는 계절적 배경이다.
② '영주'는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종교에 의지했던 절망적인 시간을 의미한다.
③ '편히 지냈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감을 느낀 데 대한 반어적인 표현이다.
④ '나무'들이 서로 기대어 숲이 되는 상황은 화자와 대조적 상황으로 화자의 외로움을 환기하는 소재이다.
⑤ '반추동물'은 이별을 고프고 있는 화자의 현 상황을 구체화한 표현이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위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보
기>

자연을 동질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근거는 두 존재가 모두 생명을 낳고 번성시키는 원초적 활동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문정희를 비롯한 여성 시인들은 임과의 사랑과 생명의 탄생이라는 여성의 체험을 자연의 거대한 운행원리에 적용시키면서 여성과 자연의 동일화를 극대화시켰다. 이들의 작품에서 대지는 흔히 모성을 상징한다. 봄을 맞아 대지 위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것과 겨울이 되어 죽음으로 잠드는 것은 여성의 생산성을 바탕으로 한 사랑과 생명이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과도 같다. 이에 따라 여성이 겪는 갈등이나 슬픔은 종종 자연의 황량함이나 파괴로 나타나며, 이러한 자연의 회복 또한 여성성의 회복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 ① ‘ 사람을 잃어버린 것’은 ‘생명의 번성’을 의미하는군.
- ② ‘벌거벗은 나무가 숲이 되는 것’은 ‘임과의 사랑’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화자의 처지와 유사하군.
- ③ ‘독백’은 죽음으로 잠드는 화자의 상황과 조응하여 이별 후 화자의 쓸쓸한 내적 정서를 드러내는군.
- ④ ‘나무’가 벌거벗은 근본적인 원인은 자연의 파괴며 이는 물질주의적 문명으로 말미암은 것이겠군.
- ⑤ ‘겨울’은 사랑하는 이와 이별한 시점임과 동시에 여성의 생산성이 소멸된 시점이며, 그렇기에 이는 화자에게 ‘죽음’의 느낌을 반추하게 되는군.

A3. 김춘수 「꽃」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1. <보기>의 a, b에 해당되는 것을 윗글에서 찾아 쓰라.

<보
기>

아직 멀었다. 내가 가르친 a.기술로 경비가 삼엄한 성에도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숨겨 둔 보물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한 번 일이 잘못되는 날에는 영락없이 곤란한 처지에 빠지고 말 것이다. 임기응변으로 궁지를 벗어나려면 스스로 터득한 b.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멀었다고 하는 것이다.

2. <보기>의 ‘얼굴’에 해당하는 시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라.

< 보 기 >

나는 시방 위험(危險)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未知)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無名)의 어둠에
추억(追憶)의 한 점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내 운다.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밤 돌개바람이 되어
탑(塔)을 흔들다가
돌에까지 스미면 금(金)이 될 것이다.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新婦)여.

- 3.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O,X)
- 4. 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

.(O,X)

5. 표면화되지 않은 화자가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서 객관성을 부여하고 있다.(O,X)

A4. 김소월 「산유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물을 활용하여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② 관조적 어조를 사용하여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특정한 음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
- ④ 시작과 끝을 반복, 변주하여 주제 강조에 기여하고 있다.
- ⑤ 대상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거리가 시종일관 유지

되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달래꽃>과 함께 소월의 대표시로 손꼽히는 이 작품은 가·승·전·결의 완벽한 구성과 평범하면서도 함축성 있는 시어를 구사하여 서정시로서의 정수를 보여 주고 있다. 나아가, 제목으로 쓰인 '산유화'는 어떤 꽃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산에 피어 있는 꽃'이라는 뜻으로 '산'과 '꽃'을 함께 제시하는 조어(造語)이며, 모든 생명체를 대표하는 대유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즉 이 글의 제재를 통해 작가는 모든 존재들의 숙명적인 개체성 또는 실존적 존재성을 표상한다. 나아가, 첫째 연에서의 '피는' 행위가 넷째 연에 이르러 '지는' 사건으로 마무리되면서 탄생과 죽음, 생성과 소멸이라는 우주 만상의 존재 원리를 강조한다.

- ① '산, 꽃, 새' 등은 지시적 의미보다는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어라고 볼 수 있겠어.
- ②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는' 것은 1연과 맞물려 생성과 소멸의 우주관을 드러낸다고 보아야 해.
- ③ '산에 피는 꽃'이 '저만치 피어 있다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고독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어.
- ④ '새'와 '꽃' 등의 자연을 소재로 쓴 것을 보아 자연의 질서가 왜곡되는 현실에 대한 절망의 표출이라 보아야 해.
- ⑤ '새가 우는 것'은 존재가 숙명적으로 화합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화자의 고독의 표현일 수 있겠군.

A5. 윤동주, 「쉽게 쓰여진 시」

() 창(窓) 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씩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時代)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나)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山)에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
맑은 그 숨결
들에 숲 속에 살아갈지어이.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인(行人)아.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을지네.
바람 비었거든 인정(人情) 담을지네.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울고 간 그의 영혼
들에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1. (가), (나)는 모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냉소적 어조로 드러나 있다.(O,X)
2. (가), (나)는 모두 부정적 상황이 시상 전개에 바탕에 깔려 있다.(O,X)
3. (가), (나)는 모두 화자의 지향적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다.(O,X)
4. (가)의 '악수'의 의미를 쓰고, <보기>의 시와의 차이점을 서술하라.

<보기>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오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거울속의나는왼손잡이오
내악수(握手)를받을줄모르는-악수를모르는왼손잡이
오

A6. ★이성부, 「봄」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빨발 구석이거나
썩은 물 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 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랑아.

1. <보기1, 2>를 참조하여 위 시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이성부의 시는 흔히 참여시로 분류된다.

이성부의 시에는 왜곡된 현실에 대한 분노와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민중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의 감정이 공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시 속에는 현실의 왜곡된 모습과 기나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지배 세력들에게 짓밟히고 고통 당한 사람들의 삶을 꺼안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곧 타인의 삶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역사적 현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시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억압과 소외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민중들의 모습에 대한 한없는 애정을 담고 있다.

<보기2> '봄'이 상징하는 자유와 평화의 새 시대를 갈망하고 있다. 아무리 길고 또 끝날 것 같지 않던 겨울도 결국은 지나가고 봄이 오는 것처럼, 시인은 유신 독재의 시대도 언젠가 반드시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 보는 것이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오는 봄처럼 그 시대는 꼭 올 것이라고 말이다.

1961년, 아직 군복을 입고서 권력을 잡았을 때부터 이 시가 씌어진 1974년까지,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5·16 군사 쿠데타 세력의 독재 밑에서 살아 가야 했으니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라는 말에 담긴 애타는 기다림을 짐작할 수도 있겠다. 그러고도 5년간을 더 기다려야 했고, 또 다시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가 이어졌지만. 도대체 어디서 무얼 하길래 봄은 이리도 디디게 오는지

- ① <보기2>를 통하여 볼 때 '봄'은 민주화가 이루어질 시기를 말할 수 있겠군.
- ② <보기1>을 통하여 볼 때 '두 팔을 벌려 안아본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겠어.
- ③ <보기2>를 통하여 볼 때 '더디게'의 원인은 오랜 시절의 독재와 군사정권 집권 때문이고, 이러한 표현은 민주화를 기다리는 화자의 애타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같아.
- ④ <보기2>를 통하여 볼 때 '바람'은 독재 정권과 군사정권 등의 민중 억압을 보여주는 시어이겠군.
- ⑤ <보기2>를 통해 볼 때 '빨밭구석'과 '씩은 물 웅덩이'는 민주화를 방해하는 독재 세력일 수도 있겠어.

A7.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사월(四月)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東學年) 공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 곳에선, 두 가슴과 그 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中立)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 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1. 위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호한 어조로 지향하는 바를 의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② 대상의 속성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서술어의 제한적 사용을 통해 여운을 느끼게 한다.
- ④ 관조적 어조를 사용하여 객관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 ⑤ 대상을 매개로 과거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위 시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1) 이 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조사와 어미, 그리고 한자어 병기 표기이다. 어미는 어조를 드러내는 효과를 보이며, 조사는 강조의 기능을 한다. 한자어 병기 표기 또한 해당 시어에 대한 강조의 효과를 드러낼 때 사용되었다.

(2) 4.19 혁명과 동학 농민 운동 역시 불순한 세력들이 존재하였다. 독재 권력, 순수한 민족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자들, 권력에 편승하는 자들이 바로 그러하다.

(3) 신동엽은 정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감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① 보조사를 사용하여 가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있다.
- ② ‘알맹이’는 한자어로 병기되어 있는 대상들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 ③ ‘사월도’에서 보조사에 주목한다면 사월의 껍데기 역시 존재하며 화자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사월’의 ‘알맹이’는 ‘동학년’의 아우성과 조음하여 권력에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정신을 의미한다.
- ⑤ ‘중립’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 시의 화자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8. 김수영, 「파발가에서」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먼지 않은 석경(石鏡)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묵은 사랑이
늪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 1.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는 것’은 묵은 사랑이 더 심해지는 것을 의미한다.(o,x)
- 2. ‘너의 그림자’는 ‘묵은 사랑’과 그 의미가 유사하다.(o,x)
- 3. 동일한 구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o,x)
- 4. 색채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생생함을 부여하고 있다.(O,X)
- 5.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O,X)

A9. 김남조, 「겨울 바다」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미지(未知)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매운 해풍(海風)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 버리고
허무의
불
물 이랑 위에 불 붙어 있었네.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꼬덕이며 꼬덕이며 겨울 바다에 섰었네.

남은 날은
적지만
기도를 끝낸 다음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인고(忍苦)의 물이
수심(水深) 속에 기동을 이루고 있었네.
-김남조, <겨울 바다>

(나)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볼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1.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경향의 시에서 생명의 문제는 역설적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를 통해 드러난다. 실존에 대한 자각은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죽음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삶에 대한 이상이나 소망을 상실하고 허무와 절망을 체험한 시적 화자는 내면적 갈등을 거듭하며 죽음을 인식하게 되고, 생사가 공존하는 공간 속에서 처절한 고독감을 느낀다. 그러나 화자에게 번민을 일으키는 이러한 상징적 공간은 죽음에 인접해 있는 만큼 삶에 대한 애착을 보다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 생명에 대한 욕망과 삶에 대한 깨달음은 극한상황에서 벗어나 다시금 질서를 되찾고자 하는 극복의지를 대두시키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때때로 인간의 유한성과 대조되는 초월적 존재를 떠올리며 그에 다다르기 위한 성숙의 시간을 갖는다.

- ① 모든 '새'는 '매운 해풍'과 더불어 진실을 열게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이다.
- ② '물이랑 위에 붙어 있는 '불'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상을 통해 표면화된 구절이다.
- ③ '끄덕이며 겨울 바다에 섰었네.'에서 삶에 대한 화자의 성찰이 드러나며 끄덕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성숙의 시간을 의미한다.
- ④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은 초월적 존재로의 지향임과 동시에 삶에 대한 애착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구절이다.
- ⑤ '인고의 물'이 기동을 이루는 것은 극한 상황에서 벗어나 이루고 하는 화자의 내면의 내적 질서가 형상화된 모습이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죽음'은 때때로 시적자아가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과 조용한다. 죽음이 곧 재생을 예비하는 과정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과제의적 죽음은 대비되는 성질을 가진 두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형상화 될 수 있다. 자아가 욕망하는 대상 혹은 바람직한 이상향을 가리키는 중심 이미지가 작품 전체를 아우르고 있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상반되는 이미지로 등장하는 식이다. 자기 정화의 과정을 충실히 겪은 후에야 새로운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죽음의 이미지는 시적자아가 성취하는 새로운 생명력의 이미지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따라서 두 이미지의 대립은 그 성질의 상충과는 달리 단순한 긍정-부정의 관계로 상정될 수 없다.

- ① ()에서 '보고 싶은 새'가 죽어 있는 상태는, (나)에서 현재 '죽은 나무 뿌리'와 유사한 상태이며, 이는 '우리'가 물로 만날 수 없는 상황과도 유사하군.
- ② (나)에서 '저 불 지난 뒤에' 만나자는 것은 '불'이 지나가야 기다리는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군.
- ③ (가)에서 '허무의 불'이 물이랑 위에서 꺼지지 않았던 것은 통과 제의적 죽음을 거부하려는 화자의 의지로 보아야겠군.
- ④ (가), (나)에서 모두 '물'과 '불'이 심상의 대비가 이루어졌지만 이 '불'은 모두 특정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요한 과정일 수 있겠군.
- ⑤ (가)에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동을 이루는 것과 (나)에 '물'들이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모이는 것은 모두 자기 정화의 과정 이후에 도달하거나 혹은 도달해야 할 경지에 해당하겠군.

A10. 이가림, 「석류」

- (가) 언제부터
이 ㉠잉겔볼 같은 그리움이
텅 빈 가슴속에 이글거리기 시작했을까
- 지난여름 내내 앓던 몸살
더 이상 견딜 수 없구나

영혼의 가마솥에 들끓던 사랑의 힘
㉡캄캄한 골방 안에
가둘 수 없구나

나 혼자 부둥켜안고
뒹굴고 또 뒹굴어도
자꾸만 ㉢익어 가는 어둠을
이젠 알알이 쏟아 놓아야 하리

무한히 새파란 심연의 하늘이 두려워
나는 땅을 향해 고개 숙인다
온몸을 휩싸고 도는
어지러운 총만 이기지 못해
나 스스로 ㉣껍질을 부순다

아아, 사랑하는 이여
지구가 쪼개지는 소리보다
더 아프게
내가 깨뜨리는 이 ㉤홍보석의 슬픔을
그대의 뜰에
받아 주소서

-이가림, <석류>

- (나) 세상의 열매들은 왜 모두
둥글어야 하는가.
가시나무도 향기로운 그의 탕자만은 둥글
다.

땀으로 땅으로 파고드는 뿌리는
날카롭지만
하늘로 하늘로 뻗어가는 가지는
뾰족하지만
스스로 익어 떨어질 줄 아는 열매는
모가 나지 않는다.

덥썩
한 입에 물어 깨무는
탐스러운 한 알의 능금
먹는 자의 이빨은 예리하지만
먹히는 능금은 부드럽다

그대는 아는가,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다는 것을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는
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세영, <열매>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어를 통해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대상의 외양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의인화된 화자를 통해 성찰적 삶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 ⑤ 자연물의 속성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 (가)의 ㉠~㉣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화자는 잔잔하게 타고 있는 '잉걸볼'처럼 언젠가 자신의 그리움이 사그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어.
- ② ㉡: 화자의 터질 것 같은 사랑의 감정은 익어가는 '석류알'과도 같아서 골방 같은 껍질 속에 가둘 수 없는 것이겠군.
- ③ ㉢: 화자는 사랑의 아픔에 몸부림치던 끝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
- ④ ㉣: 화자는 사랑하는 '그대'를 위해 스스로 자신의 사랑을 접고 있군.
- ⑤ ㉣: 사랑에 실패한 화자의 슬픔과 분노가 붉게 익은 '석류'에 비유되고 있구나.

A11. 박재삼, 「고향 소식」

아, 그래, / 건재약(乾材藥) 냄새 유달리 구수하고 그윽하던
 한넛가 대실 약방…… 알다 뿐인가
 수영 곱게 기르고 풍채 좋던 / 그 노인께서 세상을 떠났다고?
 아니, 그게 벌써 여러 해 됐다고?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 팔포(八浦) 웃동네 모퉁이

혼자 늙으며 술장사하던 / 사랑(蛇梁)섬 창권(昌權)이 고모,

노상 동백기름을 바르던 / 아, 그분 말이라, 바람 같이 뒀다고?

하기야 사람 소식이야 들어 무얼 하나, 끝내는 흐르고 가고 하게 마련인 것을……

그러나 가령 둔덕에 오르면 / 햇빛과 바람 속에서 군데 군데 대밭이

아직도 그전처럼 시원스레 빛나며 흔들리고 있다든지

못물이 먼 데서 그럴다든지 / 혹은 섬들이 줄면서 떠 있다든지

요컨대 그런 일들이 그저 / 내 일같이 반갑고 고맙고 할 따름이라네.

- 박재삼, <고향 소식>

- 1. 말을 건네는 어투를 통하여 죽음의 허무와 극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o,x)
- 2. 청자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적 화자가 대화를 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o,x)
- 3.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추상화시키고 있다.(o,x)
- 4.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o,x)
- 5. 변치 않는 자연사는 시적 화자에게 위안을 주고 있다.(o,x)

A12. 김영랑, 「내 마음을 아실 이」

내 마음을 아실 이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그래도 어디나 계실 것이면,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임 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 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낸 듯 감추었다 내어 드리지.

아! 그림다.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불빛에 연긴 듯 희미론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
 -김영랑, 「내 마음을 아실 이」

1. 가정과 답변, 자문과 자답의 방식을 통하여 안타까움과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O,X)
2. 도치를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o,x)
3. 음악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표준어법을 변화시켰다.(O,X)
4.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기를 호쾌하고도 선명한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O,X)

5.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음운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안타까움의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다.
- ② 3음보와 4음보의 적절한 조화로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가정의 방식을 사용하여 부정적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부사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더욱 내밀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도치를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6. <보기>를 바탕으로 위 시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이 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는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없는 고립된 상황에 처해있다. 언어의 조탁미는 이러한 비극성을 오히려 심화시킨다. 이러한 성향은 이 시의 특정 시구의 반복, 가정형 문장, 주변 문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① ‘내 혼자의 마음’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1연에 ‘그래도 어디나 계실것이면’이라는 가정의 표현을 통해서 아직까지 그러한 존재를 만나지 못함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2연에 ‘티끌’은 화자와 대상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상정되어 비극성을 심화하고 있다.

④ 3연에 ‘날같이 아실 이’가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가 거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4연에 ‘향 맑은 옥돌’은 화자의 마음을 알아줄 이에게 보일 화자의 은은하고도 뜨거운 사랑을 내포하고 있다.

AB1 : X(나의 의지를 돕지 않습니다.), O, X(벗과의
대화가 시적 화자가 독을 차게 된 원인이 아닙니다.), O,
O

AB2: 2, 2(영주는 사랑의 속삭임의 추억과 관련이
깊습니다.), 5

A3 : 몸짓-꽃(눈짓), 빛깔과 향기, O, X(비판적
태도없음), X(표면화 되어 있음-나)

A4 : 5(거리 자체는 있으나 비판적 거리는 아님),
4(자연적 소재를 썼다고 절망을 지니는 것이 아님, 자연의
질서 왜곡은 보기에 없음)

A5 : X(불안감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나)에
있지요. 그의 영혼은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를 통해 알 수
있지요.), O, O, 약속은 자아 간 화해이며, <보기>의
시는 그러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6 : 4 (바람은 봄을 오게 일깨워주는 매개적 존재이지
시력이 아닙니다.)

A7 : 1, 5(중립의 초례청은 이념의 대립을 넘은 공간을
의미하지 민주주의에 대한 저항과는 관련이 없어요.)

A8 : X(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는 것은 묵은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과 연결됩니다.), O, O, O, O

A9 : 1(새는 여기서 부정적 의미를 지닌 존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보고 싶던 새들이 없어진 것이므로,
보고 싶던 새 자체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어입니다.), 3(허무의 불은 절망적 상황을 의미하지
의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A10 : 5(1번에 (가),(나)모두 대비는 가능하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은 관련이 없습니다.), 2

A11 : O, O, X(추상화가 아니라 구체화), O, O(무상감을
느끼지만 변치 않는 자연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A12 : O, O, O(희미론/하오련만 등), X(섬세하고 유려한
어조이지 호쾌한 어조가 아닙니다.), 3(극복 의지는 드러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
을 것이라는 회의적 성격이 짙습니다.), 3(티끌은 장애물
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아는 이에게 다 내어줄 수 있는 자
신의 내밀한 정서를 의미합니다.)